

[학습목표]

- 조선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하고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선 전기 민족 문화의 발달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왜란과 호란 발발의 대내외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01 조선의 건국

(1) 조선의 건국

- ① 건국 주도 세력 : 신흥 무인 세력(이성계)과 신진 사대부 세력
- ② 건국 과정 : 위화도 회군(1388), 정치적 실권 장악 → 과전법 실시(1391) → 정몽주 등 반대 세력 제거 → 이성계 즉위(1392)
- ③ 국호 제정(1393) : 조선 → 단군 조선 계승 의미
- ④ 한양 천도(1394) : 천도 후 한성(한성부)으로 이름을 바꿈

(2) 조선 건국의 의의

- ① 신진 사대부,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
- ② 토지 제도 개혁으로 백성의 생활 안정
- ③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정착, 불교는 점차 억압 → 정치 제도, 사회 윤리, 여성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유교 윤리가 중심이 됨

02 국가 기틀의 마련

(1) 왕권의 강화와 대외 정책의 확립

- ① 태종 :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 장악, 외척 세력 제거 → 왕권 강화
 - 의정부 설치, 6조 중심의 정치 제도 마련
 - 호패법 시행 : 인구 동태 파악 → 조세의 정확한 징수 목적
- ② 대외 정책 : 사대교린 정책 → 조선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결정

- 태조, 요동 정벌 추진으로 명과의 관계 불편
- 태종, 명과 사대 관계 확립 : 명의 지위 인정, 조선의 실리 추구 → 명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안정 유지
- 일본 및 여진 - 교린 정책 : 회유책과 강경책 병행



▲ 조선 전기의 대외 정책

(2) 유교 정치의 발전과 영토 확장

- ① 세종의 정치 : 유교 정치의 실현 도모
 - 집현전 설치 : 학문 연구의 발판 마련
 - 경연에 힘쓰는 : 왕이 신하와 함께 학문 토론
 - 국가의 예법을 정리 : 유교 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
- ② 세종의 영토 확장
 - 쓰시마 섬 토벌(이종무, 1419) : 왜구 문제 해결 → 3포(부산포, 제포, 영포) 개항, 무역 허용
 - 4군 6진의 개척 :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 토벌 → 남쪽의 백성 이주, 오늘날의 국경선 확정
- ③ 세종 때의 문화 발전 : “훈민정음” 창제, 과학, 음악 등



▲ 4군과 6진의 개척

(3) 통치 체제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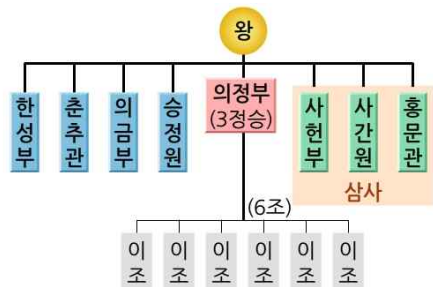
- ① 세조 : 계유정난(1453)으로 권력 장악,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 → 사육신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
 - 통치 체제 정비 : “경국대전” 편찬 시작
 - 군사 제도 정비 : 국방력 강화
 - 토지 제도 정비 : 과전법의 문란 해결 목적, 직전법 시행

- ② 성종 : 새로운 정치 세력 등용, “경국대전” 완성,
반포(1485) →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 정비 마무리

03 조선의 통치 제도

(1) 중앙 정치 제도

- 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마련
★ ② 의정부 : 최고 통치 기구 → 영의정 등 3정승의
합의를 통해 중요 정책 결정
③ 6조 : 행정 실무 담당
④ 삼사 :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 사간원 :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움
· 사헌부 : 관리의 잘잘못 감찰
· 홍문관 : 왕의 정치 자문
⑤ 그 외 기관
· 승정원 : 왕의 비서 기관
· 의금부 : 나라의 큰 범죄 다스림
· 춘추관 : 역사 편찬
· 한성부 : 서울의 행정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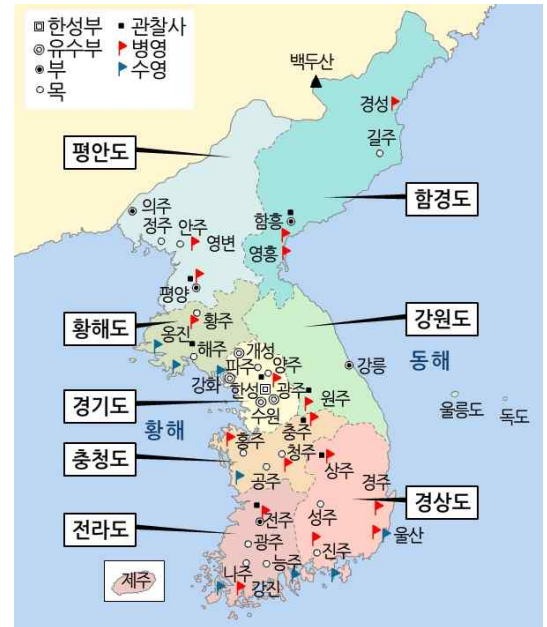


▲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2) 지방 행정과 군사 제도

- ① 지방 행정 : 전국을 8도로 구분, 관찰사 파견
· 도 아래 부·목·군·현을 두어 수령이 통치
· 수령 아래 향리가 6방으로 나뉘어 행정 실무 담당
· 유향소(향청) 설치 : 지방 양반들의 자치 조직
지방 양반의 의견 수렴, 수령 자문, 수령과 향리의
비리 고발
② 지방 행정의 특징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 향리 : 지방의 세력가 → 지방 하급 관리로 지위
하락
③ 군사 조직
· 중앙군 : 5위(궁궐 수비와 한양 방어)
· 지방군 : 각 도에 병영과 수영을 설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파견

- 봉수제 : 국경 지대의 위급 사항을 중앙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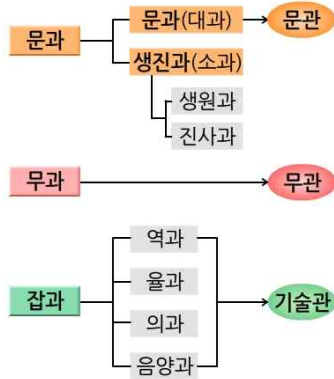
▲ 조선의 8도

(3) 교육 제도

- ① 교육의 목적 :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관리 양성
② 교육 대상 : 천민이 아니면 가능, 실제로는 양반
자제 중심
③ 교육 기관
· 서당 : 글자와 초보적인 유학 지식 교육
· 4부 학당(중앙)과 향교(지방) : 유교 경전 교육
· 성균관 : 최고 국립 교육 기관, 높은 수준의 유학 교육
④ 기타 : 외국어, 천문학, 의학, 법학 등을 기술학이라
하여 천시 → 해당 관청에서 교육, 주로 중인이
대를 이어 공부

(4) 과거 제도

- ① 과거 : 관리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과거를 거쳐야
함, 천민이 아니면 응시 가능, 3년마다 실시 원칙
② 과거의 종류 : 문과, 무과, 잡과
· 문과 : 문관을 뽑는 대과(문과) 중시, 주로 양반이
응시
· 무과 : 무관 선발, 조선 시대 본격적으로 실시,
상민의 응시 가능
· 잡과 : 기술관 선발, 주로 중인이 응시
③ 음서와 천거(추천)
· 등용은 가능, 과거를 거쳐야만 높은 관직 가능
· 음서, 2품 이상 관리의 자손 등으로 제한 →
고려보다 개인 능력 중시



▲ 조선의 과거제

민족 문화의 발달

01 훈민정음의 창제와 편찬 사업

(1)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

- ① 배경 :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 사용 → 일부 지배층만 문자 해독
- ② 훈민정음 창제(1446) : 세종, 28자의 소리글자를 만들어 반포
- ③ 훈민정음의 보급
 - 한글 서적 편찬 :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
 - 관리들에게 한글 권장, 하급 관리의 시험을 한글로 실시
- ④ 의의 : 국문학 발전 계기, 민족의식 고양, 민족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됨



(2) 다양한 서적의 편찬

- ① 조선의 기틀 마련 : 여러 분야의 학문 발달, 각종 서적 편찬
- ② 역사책 : “조선왕조실록”(국왕이 죽은 뒤 통치 기록 정리), “고려사”, “동국통감”
- ③ 지리책 : 통치에 필요한 지리 정보 확보 목적,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 ④ 윤리·예법책 : 유교적 질서의 확립 목적,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
- ⑤ 농업 서적 : “농사직설”(조선 실정에 맞는 농사법 정리)

01 과학 기술의 발달

(1) 천문학의 발달

- ① 배경 : 백성의 생활 안정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 국왕은 하늘의 명에 따라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 천문학을 특히 중시
- ② 태조 시기 :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
- ③ 세종 시기 :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 다양한 천문 관측기구 : 혼천의, 간의
 - 시각 측정기구 : 앙부일구, 자격루
 - 강우량 측정기구 : 측우기
 - 역법서(달력) 간행 : “칠정산”



▲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오차를 바로잡아 제작함

(2) 인쇄술과 의학의 발달

- ① 인쇄술의 발달 : 금속 활자 개량, 주자소 설치 및 계미자 제작(태종), 갑인자 제작(세종)
- ② 의학의 발달 : “향약집성방”(조선의 약재 정리), “의방유취”(의학 백과사전) 편찬



사림의 정치와 성리학 질서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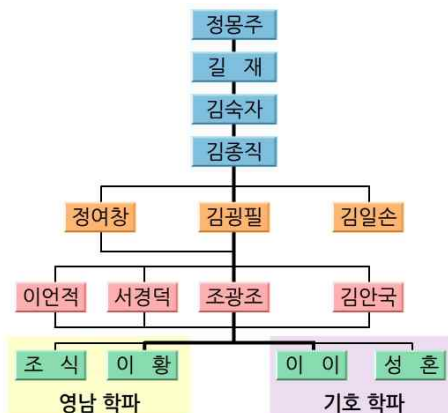
01 사림 세력의 성장

(1)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

- ① 훈구 세력 :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를 도운 공신들이 권력 차지
- ②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 소유, 권력을 누리며 정치 주도, 일부는 왕실과 혼인을 통해 세력 기반 확대
- ② 결과 : 부정부패 등 정치의 문제점 발생

(2)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

- ① 사림 세력 : 길재의 학통 계승, 왕도 정치 주장
- ②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
 - 15세기 말 성종이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 등용
 - 영남 출신의 김종직과 그 제자들
 - ★ 주로 삼사에 배치, 훈구 세력 비판 및 개혁 요구
 - 양 세력의 갈등 심화



▲ 사림의 계보도

(3)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

- ① 사화 : 연산군 즉위 이후,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 공격 시작 → 사화 발생
 - 무오사화 :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사림 공격
 - 갑자사화 :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
 - 기묘사화 :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훈구 세력 반발
 - 을사사화 :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사림 세력이 큰 피해

02 사림의 집권과 봉당의 형성

(1) 서원의 발달

- ① 사림의 움직임 :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세력 확대 → 서원 건립, 향약 보급
- ★ ② 서원의 역할 : 덕망이 높은 유학자 제사, 양반 자제 교육
- ③ 중종 때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 명종 때 '소수 서원'으로 사액 → 이후 서원 설립이 확대, 각지에 수많은 서원이 형성
- ④ 영향 : 성리학 연구와 지방 문화 발달에 기여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 향상, 지방 양반들의 여론 수렴

(2) 향약의 보급

- ① 향약 : 마을 주민이 지켜야 할 자치 규약
향촌 사회의 전통적인 풍속을 계승하고 유교 윤리를 더하여 구성
- ② 특징 :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유교적 덕목 제시
- ③ 영향 : 사림 세력, 향약을 만들고 감독 → 향촌에서 강한 지배력 행사
- ★ ④ 사림의 세력 기반 확대 : 서원과 향약을 통해 성리학적 질서를 향촌 사회에 확산 → 사림의 세력 확대 → 16세기 후반 선조 즉위 후 중앙 진출, 정치 주도

(3) 봉당의 형성

- ① 사림의 집권 : 선조 때부터 중앙 정치 주도 → 내부 분열 발생 → 봉당의 형성
- ② 봉당 : 정치 이념과 학문적 성향을 같이 하는 무리
 - 형성의 배경 : 이조 전랑 임명 문제, 왕실 외척 세력과의 관계 형성 문제
 - 봉당의 발생 :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
- ③ 봉당 정치의 전개 :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며 정치를 이끌어 나감
 - 선조 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 → 광해군 때 북인이 정치 주도
 -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남인과 연합하여 정치 주도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01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1) 일본의 조선 침략

- ① 전쟁 전의 정세
 - 조선 : 200여 년간 평화 유지 → 군역 제도 등의 문란으로 국방력 약화
 - 일본 : 도요토미 히데요시, 100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를 통일, 조선 침략 도모
- ② 임진왜란 발발(1592. 4.) :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 침략, 부산진 및 동래성 함락 → 20여 일 만에 한성 함락, 선조는 의주로 피란 → 평양과 함경도까지 침략

(2) 의병과 수군의 활약

- ① 의병의 활동 : 익숙한 지리를 활용하여 일본군에 타격
 - 의병장 :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
- ② 수군의 활약 : 이순신의 수군, 남해 장악 → 일본군 보급로 차단, 전라도 곡창 지대 보호
- ③ 전세 역전 : 명의 지원군, 행주산성(권율) 및 진주(김시민) 승리 → 남쪽 해안으로 밀려난 일본군, 휴전 제의
- ④ 정유재란(1597) : 3년에 걸친 협상 실패 → 일본군의 재침략 → 이순신, 명량 해전 승리 → 노량 해전 승리로 전쟁 종결



▲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

(3) 전쟁의 결과

- ① 조선 : 농토의 2/3가 황무지로 변함 → 농민 생활 및 국가 재정 악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감. 문화재 소실 및 약탈
- ② 일본 :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수립, 기술자 납치와 문화재 약탈 → 문화 발전의 계기로 작용
- ③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일본 관계 회복, 외교 사절인 통신사 파견
- ④ 중국 : 명의 국력 약화 →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 확장

01 청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1)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

- ★① 17세기 동아시아 정세
 - 조선 :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 → 토지 대장과 호적 정리, 성곽과 무기 수리
 - 만주 : 누르하치, 여진족 통일 → 후금(대금) 건국(1616), 명과 대립
- ② 중립 외교 정책 : 후금이 명을 위협 → 명이 조선에 군사 요청 → 광해군, 강홍립을 파견하며 상황에 따라 실리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③ 서인 세력의 정변(인조반정, 1623)
 - 배경 :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 영창대군 살해와 인목 대비 유폐에 대한 비난
 - 결과 : 서인의 정변, 광해군과 복인 정권 축출 → 인조 즉위

(2) 청의 조선 침략

- ① 배경 : 인조와 서인 정권, 친명배금 정책 → 후금 반발
- ② 정묘호란(1627) : 이괄의 난으로 조선 혼란 → 후금 침략,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 → 의병의 항쟁 → 조선, 후금과 형제 관계 체결
- ③ 병자호란(1636) : 후금, 국호를 청으로 개칭, 조선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 요구 → 조선의 거절 → 청 태종의 침략 → 임경업의 백마산성 항전, 한성이 일주일 만에 함락 → 인조, 남한산성에서 항전 끝에 청의 요구 수용, 삼전도에서 항복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3) 북벌의 추진

- ① 배경 : 세자와 왕자, 척화파 등 많은 사람이 인질로 끌려감, 청의 많은 공물 요구
- ② 효종의 북벌 추진 : 성곽과 무기 정비, 군대 양성
 - 무리한 추진으로 백성의 원망, 청의 국력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
 - 효종의 죽음으로 사실상 중단
- ③ 나선 정벌 : 러시아 침략을 받은 청의 요청, 만주 북부에 2차례 군대 파견



▲ 나선 정벌

학습자료



확인 테스트

1. 조선의 최고 통치 기구 () (은)는 3정승의 합의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다.
2. 연산군에서 명종에 이르는 시기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네 차례의 () (이)가 발생하였다.
3.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 정책을 펼쳤다.

동어 정리

1. **과전법** : 농민이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을 과전을 받은 관리에게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고려 말 권문세족의 농장을 빼앗아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됨
2. **호패법** :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니고 다님
3. **집현전** :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강론하고 임금에게 자문을 행하던 조선의 연구 기관
4. **경연** : 국왕에게 유학의 경전을 강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왕과 신하가 정치 문제를 협의하는 기능까지 담당함
5. **4군과 6진** : 세종 대에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시킨 결과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건설한 군사 시설로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이 때 확장됨
6. **“경국대전”** : 조선 전기의 법전으로 1461년(세조 7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1485년(성종 16년)에 완성,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법령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조선 통치 질서의 기본을 확립함, 이전·호전·병전·형전·예전·공전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7. **직전법** : 세조 때 실시된 토지 제도로 기존의 과전법하에서 새로 임용된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관직을 가진 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은퇴한 자는 국가에 다시 반납하도록 한 제도, 이 법의 시행으로 관리들은 관직에 오래 머물기 위해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관직에 있을 동안만 재산을 모을 수 있어서 더 가혹하게 농민을 수탈함. 1470년(성종 1년)에는 직전법도 폐지하고, 국가가 관리 대신 직접 조세를 거두어 다시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됨

8. **용비어천가** :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후왕에 대하여는 올바른 통치를 권계하고, 신하들에 대하여는 충성을, 백성들에 대하여는 교화를 촉구·도모하고자 함
9. **“석보상절”** : 조선 세종 때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으로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불경언해서, 소헌왕후가 죽자,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수양대군이 석가의 가족과 일대기를 기록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
10. **“동국여지승람”** : 조선 초기의 지리서로, 1432년(세종 14년)에 국가 통치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되어 각 도의 역사·지리·지도·인물·시설 등을 기록함, 1486년에 개정되었으며, 1499년(연산군 5년)부터 다시 대대적인 개편을 해, 1530년(중종 25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되었고 이는 국가 통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됨
11. **삼강행실도** : 1434년(세종 16) 설순 등이 왕명에 의해 군신·부자·부부의 3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
12. **‘조의제문’** : 초나라 황제인 의제의 명복을 비는 글로 사림 김종직이 쓴 글, 겉으로는 초나라 의제가 부하였던 항우에게 살해당한 것을 애도하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수양 대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음. 이를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자료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훈구파가 이를 기회로 사림파가 왕의 할아버지(세조)를 비난하려 한다고 주장함. 결국 연산군도 이를 이용하여 왕권 행사에 각종 제약을 가하던 사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무오사화를 감행함
13. **이조 전랑** :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함께 부르는 말로 삼사 관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도 있던 직책
14. **이괄의 난** :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이괄이 2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